

## VII.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감독기구는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시장규율의 강화를 위한 리스크 공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선진국들의 리스크 공시 수준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리스크 공시 중심의 리스크감독정책의 변화는 신BIS규제상의 리스크 공시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신BIS규제의 pillar 3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보험권의 Solvency II가 확정되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 역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 제도의 운영이 직·간접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리스크 공시를 둘러싼 금융환경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여건에 부합한 단계별 리스크 공시 방향이 리스크 공시의 로드맵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즉, 국제감독기구의 리스크 공시 기준과 선진 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시 사례, 우리나라의 리스크 공시 현황 및 제반 문제점 등을 비교·검토한 후에 국내 실정에 부합한 리스크 공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리스크 공시에 대한 감독정책의 확립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제감독기구가 제시한 리스크 공시 관련 기준과 선진국의 리스크 공시 관련 규제 및 감독, 선진 금융회사의 사례 등을 조사하고, 우리 현실을 이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실정에 부합한 리스크 공시의 방향성을 시안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우리나라 리스크 공시의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볼 때 단기간 내에 리스크 공시의 선진화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공시는 단계별로, 즉 제1단계(2006~2007년), 제2단계(2008~2010년), 제3단계(2011년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리스크 공시의 단계화). 둘째, 우

리나라도 리스크 공시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자본 및 리스크 익스포져 공시, 질적 및 양적 공시 중심의 공시 등 두 개의 틀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리스크 공시의 국제화). 셋째, 리스크 공시제도가 일반인,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과도한 리스크 공시, 왜곡된 리스크 공시가 아닌 유용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리스크 공시의 범위 및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리스크 공시의 유용성).

세부방향 측면에서 볼 때 공시원칙 경우, 양적 공시 위주에 탈피하여 질적 공시를 강화하고 손익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요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에 대한 측정방법 및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향후 추진되는 리스크중심 감독정책 및 새로운 재무건전성 체제인 Solvency II의 pillar 3 제정 과정 속에 나타나는 리스크 공시 가이드 라인 등을 참조하여 보험회사 특성에 부합한 리스크 공시 수준 및 범위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공시수준 측면에서는 ① 자기자본 내역 및 자본적정성 공시의 경우, 제1단계 및 제2단계에 걸쳐 자본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질적 정보의 강화가 요구되지만, 신종자본증권 및 하이브리드자본과 같은 보완자본에 대한 질적 공시는 제3단계인 2011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적정성 공시의 경우, 자본적정성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은 질적 공시 차원에서 제2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신용리스크에 대한 공시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잔여만기별 익스포져 분포, 부실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 산업별·지역별 익스포져의 분포,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분포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한 양적 공시의 충실화가 요구된다. 질적측면에서는 신용리스크관리 관련 자본배분, 한도설정, 관련 자산의 평가방법, 재보험자의 신용리스크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요구된다.

③ 시장리스크에 대한 공시의 경우, 양적 공시 내용으로는 시장리스크의 요구자본량, 연간 최고, 중간, 최저 VaR값, 연말 VaR값, 사후검증

결과 이상치에 대한 분석, 예측값과 실제값의 비교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질적 정보로는 시장리스크 측정방법론, 측정모델의 특성, 민감도분석, 검증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④ 운영리스크에 대한 공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타 다른 리스크 공시 부문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운영리스크 공시 부문에 대한 보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제3단계에서 운영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내부모형 사용시 모형에 대한 설명, 비상계획, 운영리스크 감소를 위해 가입 보험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⑤ 책임준비금 및 보험리스크 공시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추정방법에 대한 설명, 책임준비금 추정에 사용된 경제적·계리적 가정에 대한 제반 정보 등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험리스크에 대한 공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리스크중심 감독체계가 확립되고 Solvenvy II가 도입된 제3단계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질적 공시 차원에서는 보험리스크관리 목적, 정책,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양적 공시 차원에서는 보험회사의 손익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비율, 유지율 등과 같은 계리적 가정의 변동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감도 분석결과를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제시될 수 있다. 회사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민감도분석 결과의 공시가 더 바람직할 것이다.

공시주기 및 요건 측면의 경우, 장기적으로 리스크관리 목적과 원칙, 보고시스템 및 정의와 같은 질적 공시를 제외하고는 반기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되, 자기자본 내용은 분기별로 공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시요건 측면에서 이사회 등에서 승인한 공식적인 공시정책 마련이 요구되며, 공시 프로세스에 관한 내부통제를 갖추고 공시의 검증과 빈도를 포함하여 공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 이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공시의 향후과제 측면에서 볼 때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및 향후 변동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시장규율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보험회사 리스크 공시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장기적 측면에서 RBC 및 RAAS 시행과 같은 감독정책의 변화 및 Solvency II 체계의 확립 등과 같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를 선진화할 수 있는 스케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로드맵은 보험회사의 규모 등 시장에서의 영향력 및 현재 리스크관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험회사 역시 좀더 적극적으로 경영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시함으로써 시장참여자에게 경영성과를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소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리스크 공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진금융회사 사례, 각국 규제 및 국제감독기구의 권고안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제도 선진화를 위한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계기로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와 관련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원한다.